

지역특이점

김제시, 수도권 도시민 유치 활동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활기찬 농촌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방배동 수도권 상담홍보관에서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활동'을 펼쳤다.

이번 상담활동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의 삶과 김제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으며 귀농귀촌 정책설명, 지원사업 및 교육과정 안내, 각종 귀농귀촌 성공사례 강의와 함께 1:1 맞춤형 개별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지역 내 농특산물과 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지평선' 등을 소개하며 농업특화도시로서 강점을 알렸고 새만금 배후지역으로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과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된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단지 조성 등 시의 비전을 제시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역량있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의 메카인 김제시에서 희망 가득한 귀농귀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제시에서는 수도권의 귀농희망인을 대상으로 캠퍼스형식의 예비귀농인 지역선택 학습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도권 도시민 유치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춘천소양강배 씨름대회 준우승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통합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씨름협회가 주관한 '제2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일반부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개인전에서는 용사급 박상구 선수가 준우승, 용장급 오성호 선수가 3위에 올랐다.

김생기 시장은 "단풍미인씨름단이 창단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기쁘다"며 "그간 땀 흘려 노력해온 선수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의 이미지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단풍미인 씨름단은 지난 1월 29일 창단 후 제70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에서 경장급 최기복 선수가 우승한데 이어 제53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상위위에 입상하는 등 전복도 내 유일 씨름단의 저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8개 마을 7.2km

급·배수관 포설 추진

정읍시가 8억원을 투입해 8개 마을 7.2km의 급·배수관 포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나서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대인 산전과 북면 상유, 감곡 통사, 철보 장구, 응봉 내칠, 상교 연정 6개 마을 사업이 완료돼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신대인 노랑산과 상교동 반암 2개 마을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는 우선 장애인들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와 함께 수익금을 활용한 나눔의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직업훈련 부스'를 운영한다. 위 사진은 작년 지평선축제 모습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평선축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 부스'로 배움과 나눔 실천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백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함께 일하는 나눔의 장을 만들고자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하는 축제'로 거머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제시는 우선 장애인들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와 함께 수익금을 활용한 나눔의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완)에서 '장애인 직업훈련 부스'를 운영한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의 편견과 어려움을 끊임없는 도전으로 극복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과 자립생활을 위해 직업훈련에서 습득한 기술을 생과일주스 판매, 쌀도넛 체험 등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해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상도 상영할 예정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또 다른 나눔'을 위해 쓰여질 예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나눔의 인식전환을 기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 부스'를 운영하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장년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및 그래픽디자인, 영상, 영상미디언 교육, 취업 준비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직업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 축제장과 시내 일원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과 축제 성공 기업을 위한 다양한 나눔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에서 '김제지평선축제 봉사지킴이'를 전체적으로 운영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로서 김제를 알리고 현재의 위상에 오를 수 있었던 숨은 공로자는 바로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같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번 김제지평선축제가 지역 장애인들의 소중한 축제 참여를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인 재능나눔사업 설명회 개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노인 재능나눔사업 설명회가 최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허브화 사업 설명, 노인 재능나눔사업 경과보고,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정정숙 연주자의 색소폰 공연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간담회는 부안 읍사무소 전재호 맞

춤 복지팀장의 복지허브화 사업 설명으로 시작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부안읍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및 연계사업이다.

이어 고금옥 부안지회 경로부장의 노인 재능나눔사업 경과보고와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 등을 끝으로 6개월

간의 노인 재능나눔사업을 종료했다.

노인 재능나눔사업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여 동안 일 3시간 월 10시간 활동을 통해 활동비 9만 원이 지급된 사업으로 노인안전예방활동 430명과 학습지도활동 20명 등 총 45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철 부안지회장은 "재능과 어르신들의 연륜의 소중함을 알고 재능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돼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추석 대비 물가안정위반 특별 단속

내달 8일부터 추석 당일까지, 원산지 미표시·불법 계량행위 등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불법 상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8일부터 추석 당일(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과 계수품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해 혼란하고 안정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계량행위와 가격표시, 그리고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 단속한

다.

이와 관련, 시는 5개반 17명으로 '추석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와 배, 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1개 성수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와 판매량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상거래 질서도 점검한다.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사용 여부와 원

산지 표시, 그리고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의 상거래 질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계량기 미 사용 등 전반적인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시민과 지역을 아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 업소 이용을 자제해 야 이들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 임시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30일 제 20회 임시회를 개최, 오는 9월 7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첫 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9월 7일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9.63% 증가한 6,080억원이 편성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는 가선거구 김북남 의원과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김북남 의원은 김제시의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주변 시유재산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금산사 입구에 있는 구우체국 건물을 매입, 기념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모악산 도립공원내 야영장, 김제시 농산물 홍보관에 대한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임영택 의원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평선 쌀 계약재배 면적 확대,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대체 작물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뭄피해 긴급 대책 회의 개최

김제시는 7~8월 지속된 폭염과 적은 강우로 인한 폭염 및 가뭄 피해 예방과 피해조사 관련 대책을 위한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특히 7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33°C이상의 찜통더위가 평균 34.9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13일보다 거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은 당분간 계속되고 무더위는 9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관련 부서장의 긴급 대책회를 통해 폭염과 가뭄에 대비한 농작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작의 경우 국지적으로 논 물마름 현상이 확인됐으나 제한급수 절수·담수 대책을 통해 용수공급 마무

리 시점인 9월 중순까지 물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발작물은 잎마름, 생육부진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긴밀히 하여 동원 가능한 인원과 재원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농작물 및 가축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조사와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전례 없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의에 빠진 농업인이 또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폭염 농작물 피해 복구계획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건강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장비 확보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장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했다.

'건강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 박차

김제시 황산보건지소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 지역특화사업으로 황산보건지소에서는 '건강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는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엔 행복감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단순 진료 위주의 보건행정을 수행해 온 보건지소가 보다 적극적인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사랑방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지역건강지킴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강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장비 확보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장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무더위를 피해 보건지소를 찾은 주민들의 인식처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건강 충전 행복 찾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건강동아리 회원 대상 체지방 검사 등 기초건강검사 실시, 생활습관병 보유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관절염 어르신들의 하체 근육 강화를 위한 고정식 자전거 운동,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걷기운동 지도 등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수준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지방 검사나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공복을 유지하여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프로젝트 참가 전후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에서 전문의 상담은 물론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주민 개개인의 수준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부안군의회, 30개 주요 사업 현장방문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 현장 30개소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0개 주요 사업장소 및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진행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방문 사업장은 남포 소하천 정비사업, 진서면 천일염 바다재 개선사

업,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사업, 위도낙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고마계 수변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사업,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다. 부안 군의회 오세웅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려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